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09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9**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Part 1

Passage 1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전광용의 <꺼삐딴 리> 중의 일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격동기를 살아가는 의사 이인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 온 환자의 초진(初診)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5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1차 진료는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친한 친구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이라도 받지 못하거나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준, 그의 반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10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일제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축들이어야만 했다.

1945년 8월 하순.

15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칠 때였다.

말복(末伏)도 지난 날씨이건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봄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쉼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입원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20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 아니 그 곳에 썩어 있는 구절. 25
- ‘ 친일파(親日派),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를 타도(打倒)하자.’
-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30
- ‘나야 원 괜찮겠지.....’
-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 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쓴 것처럼 꺼림칙하기만 했다. 35
- 그깟 놈 하고 머리에서 씻어 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붙는 것만 같았다.
- 벌써 육 개월 전의 일이다.
-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40
-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뻥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켕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몇몇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 (皇國臣民) - 일본의 천황에 충성하는 국민 - 의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5
- 그는 응급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땃땃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버렸다. 50
-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 경축 시가행진을 구경하느라고 혜숙이와 함께 대문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腕章)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55
-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뚱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벉벉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

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혜숙에게 듣고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중략]

60

자신이 잡혀온 이 곳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연 더듬어지지 않는 뒤형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쥘 불을 붙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65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중략]

“쪽발이 꼬나풀, 야, 이 새끼야.”

고함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70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뇌까렸다.

“왜놈의 밀반이, 이 개새끼야”

군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 봐라.”

75

구뎃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깻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80

어렴풋이 꿈 속에서처럼 들려 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 1 Passage 1 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에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5=25$ 점입니다.)

- (a) 이인국 박사의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순서를 요약하십시오. [4]
- (b) 11 줄에서 ‘양면진단’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3]
- (c) 이인국 박사의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십시오. [1]
- (d) 18–9 줄에서 이인국 박사가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
- (e) 이인국 박사가 벽보를 보고 전율을 느낀 까닭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
- (f) 46 줄에서 ‘공든 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1]
- (g) 이인국 박사가 환자 춘석을 돌려보낸 까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2]
- (h) 54–56 줄에서 이인국 박사가 해방경축 시가행진에서 마주친 춘석이의 ‘눈에서 불뚱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던 이유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십시오. [2]
- (i) 61–5 줄 사이에서 이인국 박사의 어려운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쓰고 그것이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2]
- (j) 해방 이후 이인국 박사의 심리적 상태가 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약하십시오. [3]

Part 2

Passage 2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이 글은 채만식의 <미스터 방> 중 일부입니다. 주인공 방삼복이 해방 전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방삼복이는...먹고 자고 꾸꾸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 밖에 모르는 상일꾼(농부)였었다.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담시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떠난 지 칠팔 년을 별반 신통한 별이도 못 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소식이 없다가, 삼 년 만에 푸퉁 고향엘 돌아왔다.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5

10

[중략]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 날도 신기료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썩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썩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15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0

[중략]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25

[중략]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30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 들고 기물스러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치? 하우 머치?”

하고 묻는다.

35

담뱃대 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큰소리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씨고 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 원”

하여 주었다.

40

훅 돌려다보더니,

“오, 캔 유 스피크?”

하면서 사뭇 그러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는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45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코빼푼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십오 불 (이백사십 원) 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중략]

50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옹아오기는 S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

하루에도 방 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으레 따로이 뿌듯한 봉투가 들었곤 하였다.

55

[중략]

“서 주사가 이거 두고 잡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60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수표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 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그걸 십만 원에 얻어다가 백만 원쯤 남겨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내가 엠피(MP)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65

[중략]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는다. 쑥발을.’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찢찢맵니다.”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70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마루는 현관 정통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마루 아래로 아낌없이 콧 배알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마루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75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80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뻗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폭포처럼 내려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착르르.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 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85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컹,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2 Passage 1 과 Passage 2 를 읽고 다음에 답하십시오.

Passage 1 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와 Passage 2 의 주인공 방삼복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십시오.

[15]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BLANK PAGE

Copyright Acknowledgements:

Passage 1 © Jean Kwang Yong; Kapitan Lee; Eulyun Munwhasa; June 2004.

Passage 2 © Chue Man-Sik; Mr Bang, Chue Man-Sik Danpyonseon; Book and Book; Jan 2008.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